

미국회곡과 아메리칸 모더니티: 1910-1950년 회곡을 중심으로*

우 미 성
연세대학교

I. 서론

본 논문은 20세기초반 현대미국회곡에 드러난 모더니티 재현의 양상을 분석함으로써 미국사회의 모더니티를 바라보는 미국회곡의 지배적인 정서와 시각을 규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모더니티라는 주제가 가지는 규모와 포괄적인 의미 때문에 한 작품만 밀도있게 고찰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닐텐데 제한된 시간에 제한된 지면에서 반세기에 걸친 대표작품들을 통합적으로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일 뿐만 아니라 깊이있는 텍스트분석을 놓칠 우려도 다분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의 거시적, 통합적 분석을 시도하려는 이유는, 회곡이 미국사회를 반영하는데 있어서 드러내는 일정한 패턴이나 공통점은 없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었기 때문이고 무엇보다도 정전에 해당하는 회곡작품들을 가로지르는 지배적인 정서나 시각에 대해 학생들과 통합적으로 소통하고 싶은 욕구가 생겼기 때문이다.

논의의 시기를 20세기 전반부로 한정할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현대미국회곡은 크게 1900년대 초반 제1차 세계대전부터 1950년대까지의 ‘모던시

* 이 논문은 2006년도 정부재원(교육인적자원부 학술연구조성사업비)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KRF-2006-332-A00306).

기'(Modern Period)와 1950년대 후반부터 오늘날까지의 '최근시기'(Contemporary Period)로 나눌 수 있는데 두 시기는 작가들이 관심을 가지고 다룬 주제 면에서도 차이가 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주제의식을 전달하는 표현양식에도 확실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 미국희곡 전공자들의 중론이다. 여기서는 미국사회의 모더니티 문제를 극작가들이 동시대적 감성으로 보다 활발하게 조명했던 시기를 집중분석하기 위해 논의 대상 시기를 20세기 전반으로 한정했다. 두 번째로는 미국희곡을 대표하는 세 사람의 작가, 유진 오닐(Eugene O'Neill), 테네시 윌리엄스(Tennessee Williams), 아서 밀러(Arthur Miller)가 모두 모던시기에 활발하게 활동했던 인물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들의 대표작들이 모두 1950년대 이전에 발표되었다는 사실은 미국희곡문학의 정체성과 모더니티의 주제가 무관하지 않음을 시사한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즉 미국희곡문학의 정전을 관통하는 주제의식 속에서 모더니티를 바라보는 시각과 감성의 공통점과 작가별 차이점을 찾아내 보는 일은 현대미국희곡의 지배적인 패턴과 미국적 감성을 동시에 조명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논의가 기여할 수 있는 바가 있다면 우선 유럽문화권과 다르게 미국 사회가 겪었던 모더니티의 현상을 집중 분석해봄으로써 아메리칸 모더니티의 특징을 규명해 볼 수 있다는 점이다. 영국이 산업혁명을 주도하며 지적, 사회적 변혁의 현장이었던 유럽문화권에서 보다 즉각적으로 모더니티의 주제들이 1870년대 후반부터 희곡에 등장한 반면, 유럽문명의 사생아처럼 출발한 미국문화에서는 모더니티의 출현 역시 시간적 지체를 경험하지 않을 수 없었다. 모더니티를 어떠한 현상으로 정의하는가에 따라서 논의의 방향도 달라질 수 있겠으나 미국희곡에 드러난 지배적인 주제의식을 분석함으로써 반대로 미국적 모더니티의 정체를 몇 가지 키워드로 정의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미국희곡문학이 지니는 사회적 함의를 읽어낼 수 있겠다.

작가중심으로 발전해 온 현대영국희곡에서는 정전과 대중연극의 차이가 크지 않았던 반면 미국은 대중연극과 고급문학으로서의 희곡이 각기 다르게 발전해왔다. 미국 땅에 처음 극장이 들어선 것은 1752년이었고 버지니아주 윌리엄스버그

에 세워진 건물이 최초였으며 미국인에 의해 쓰여진 희곡이 처음 공연된 것도 1767년의 일이지만 미국적인 이야기와 주제를 담은 연극이 등장한 것은 1800년대 중반이라고 할 수 있다. 19세기 작품들을 포함한 초기 미국희곡은 유럽의 풍속희곡이나 멜로드라마를 그대로 답습한 작품들이라는 지배적인 인식 때문에 오늘날까지 학문적 가치를 인정받지 못해왔고 실질적으로 미국희곡작가들이 국제적인 인정을 받기 시작한 것은 20세기에 들어서였다.

미국희곡을 유럽문학에 견주어 손색이 없는 성숙한 수준으로 끌어올린 작가가 유진 오닐이라는 사실에는 모든 학자들이 공감한다. 오닐만큼 주제와 플롯, 극작술이 유기적으로 잘 조합된 실험극을 다양하게 시도한 작가는 유럽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것이 사실이지만 이런 작가의 탄생이 개인적 천재성과 사회적 배경이 동시에 작용한 결과라고 본다면 제1차 세계대전 직후는 미국사회가 유럽과 어깨를 나란히 할 만큼 지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성숙하고 있던 시기였음을 감지할 수 있다. 이는 달리 말하면 1920년대에서야 비로소 미국사회가 유럽에 견주어 뒤지지 않을만한 산업화와 도시화를 이루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즉 문학이 반영하고 있는 자화상이 사회적으로나 문학적, 철학적으로 부끄럽지 않을 만큼 세련되었다고 느꼈을 때 미국사회는 그들을 대표할만한 희곡의 탄생을 선언할 수 있었던 것이다.

II. 본론

1. 아메리칸 모더니티

모더니티를 “근대성”으로 해석할 것인가 “현대성”으로 해석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고 연구대상 지역의 역사적 발전과정을 고려해야한다는 견해가 지배적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학계에서 오래 사용되어온 “근대”와 “현대”의 언어적 뉘앙스와 선입견을 고려하여 이 글에서는 모더니티를 원어 그대로 표기하기로 하였다. 문학뿐만 아니라 사회학, 철학, 미학에서도 유럽의 모더니티 담론이 지배적

이였다면 상대적으로 미국은 문화사회학을 제외하면 비교적 모더니티 논쟁 자체에 무관심한 편이었고 이러한 경향은 우리나라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미국문학에서의 모더니티 논의는 1990년대 이후에 들어서야 조금씩 진행되기 시작했다. 문학에서의 모더니즘 논의는 주로 시와 소설의 이미지즘이나 화자의 의식과 이야기 전개방식 등 미학적 관점에서 연구되어왔다. 대표적으로 몬트로즈 모시스(Montrose J. Moses)가 편집한 『모더니즘 희곡과 대표주자들』(Dramas of Modernism and Their Forerunners), 조셉 우드 크러치(Joseph Wood Krutch)의 『현대희곡의 모더니즘』(Modernism in Modern Drama), 말콤 브래드버리(Malcolm Bradbury)와 제임스 맥파라인(James McFarlane)이 편집한 『모더니즘: 1890-1930년 유럽문학을 중심으로』(Modernism: A Guide to European Literature 1890-1930), 그리고 아스트라퀴르 에이스텐손(Astradur Eysteinnsson)의 『모더니즘의 개념』(The Concept of Modernism)과 같은 책들을 거론할 수 있는데 이런 연구들은 모더니티의 개념과는 별도의 문학상 “모더니즘” 연구라고 할 수 있겠다. 희곡에서의 모더니즘 논의는 가장 유사한 경우로 양차세계대전 직후 유럽의 철학적 흐름과 사회적 이데올로기를 반영한 문화운동으로서의 유럽의 연극계가 보여준 부조리극, 반연극운동에 드러난 미학적 철학적 기법에 관한 연구들을 들 수 있겠다. 그러나 부조리극의 경우 마틴 에슬린(Martin Esslin)의 정의로 그 다양성이 묶여졌을 뿐 오히려 극작기법상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의 경계를 실험한 극들로 이해될 수 있다. 미국희곡사의 경우 20세기 전반 미국희곡작가들, 대표적으로 오닐, 윌리엄스, 밀러의 개별적인 삶과 극작술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음을 고려하면 극작술상의 미학적 모더니즘이나 실험성을 또 다시 논하는 것은 의미없는 일일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서는 문학기법으로서의 모더니즘 연구가 아니라 희곡작품들에 등장하는 변모하는 미국사회를 모더니티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모더니티가 각각의 등장인물들을 통해 어떤 주제들로 변주되는지에 주목해보려고 한다.

이미 언급한대로 모더니티의 정의는 역사적 관점, 철학적 관점에 따라 다양하다. 예를 들어 앤서니 기든스(Anthony Giddens)는 모더니티를 네 가지 제도와 그 관계성으로 개념화하면서 주로 자본주의, 산업주의, 군사적인 힘, 감시체제를 중심으로 설명

하며 오늘날 현대사회도 포스트모더니티가 아니라 “후기모더니티” 또는 “성찰적 모더니티”라는 개념으로 이해할 것을 제안한다. 즉 모더니티의 중요한 양상중의 하나가 바로 “역사적인 시점에 대한 성찰이나 자각”이라고 할 수 있고 그러한 성찰이나 자각이 그 시대의 문학이나 예술, 지식인들에게 어떻게 포착되었는가가 궁극적으로 모더니티 이해의 핵심임을 시사한다. 그러나 서양의 역사 속에서 통시적, 공시적으로 고찰해보면 비교적 공통적인 모더니티 형성의 조건이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여기서는 주로 말콤 워터스(Malcolm Waters)가 편집한 모더니티에 관한 가장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저서 『모더니티: 주요개념들』(*Modernity: Critical Concepts*)의 1권부터 4권까지의 내용을 기반으로 간추려진 모더니티의 특징을 가지고 논하려고 한다. 이 개괄서에 따르면 모더니티의 공통적, 또는 지배적인 양상은 자본주의(capitalism)의 확대, 과학과 기술의 진보(progress of science and technology), 산업화(industrialization), 도시화(urbanization), 개인주의(individualism), 집단적 사회운동의 확산(rise of social movements), 매스미디어(mass media) 영향력의 팽창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¹⁾

양차 세계대전 사이 미국은 이러한 모든 조건들이 가장 단 시간에 폭발적으로 등장한 시기였고 상징적으로 대외적인 전쟁뿐만 아니라 미국사회 내에서도 크고 작은 갈등과 분쟁, 세계를 인식하는 세계관의 차이에서 생기는 여러 소규모 집단들의 ‘전쟁’으로 점철된 시기가 아닐 수 없었다. 서양에서 모더니즘의 시작지점을 크게는 중세이후로 보듯 유럽에서 모더니티의 발현은 15세기 중반 구텐베르크의 인쇄술 발명이후로 500여년에 걸쳐 서서히 진행되어온 반면 미국사회에서의 모더니티 발현은 제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사이에 급속하게 압축적으로 진행되어온 특징을 보인다. 사회학자 피터 와그너(Peter Wagner)는 그런 의미에서 아시아나 아프리카와 같은 역사가 장구한 다른 대륙과 달리 미국의 모더니티 형성과정은 유럽의 학자들이 모더니티에 대한 개념을 형성하는 과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고 모더니티의 특징과 조건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모델이 된다고 설

1) *Modernity: Critical Concepts*의 네 권 가운데 특히 *Volume I Modernization*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1999)의 “General Commentary: The Meaning of Modernity”(xi~xxiii)참조.

명한다.²⁾ 급격하게 팽창하고 분화하며 변모해가는 사회의 여러 변화의 양상, 즉 모더니티의 여러 현상들을 미국의 당대 희곡작가들은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었으며 공연을 통해 관객에게 어떻게 전달하고 있었는지를 들여다보는 것이 미국희곡에 재현된 모더니티 분석이자 1910년부터 1950년까지 시대를 관통하는 미국희곡의 대표적 정서일 것이다.

물론 모더니티의 여러 양상들이 공연텍스트로서의 희곡뿐만 아니라 연극사적으로 공연계에 어떤 영향력을 끼쳤는지를 파악하는 것도 의미있는 일일 것이다. 대표적으로 1차 세계대전이 시작되려는 시점부터 본격적으로 미국 내에서 일기 시작한 소극장운동(Little Theatre Movement)은 근대이전의 시기에 정부가 주도해 만든 대규모 국립극장이나 공립극장과 달리 자율적이고 민주적인 지역 소극장운동으로 확산되었다. 시카고 소극장(Chicago Little Theatre)을 세운 영국인 모리스 브라운(Maurice Browne)에 따르면 “1912년 후반에 미국전역에 단 두 개뿐이던 소극장이 불과 5년 뒤에 뉴욕의 타임스 스퀘어 5마일 내에만 무려 30개, 5마일 밖까지 포함하면 300개의 소극장이 있었을 정도였고 1920년 즈음해서는 수천 개의 소극장이 있었다”(Watt 339)고 쓰고 있다. 흥미롭게도 경제 대공황기를 겪었던 1930년대조차도 노동자들은 자신의 이익과 노동, 고용안정을 보장받으려는 사회주의운동의 일환으로 극단들을 만들어 “1935년경쯤에는 무려 400개의 노동자중심 공연 팀들이 있었다”(Fletcher 123)고 앤 플레처(Anne Fletcher)는 적고 있다. 이 급속도로 진행된 소극장운동의 확산이 미국의 연극과 희곡을 유례없이 실험적이고 새로운 것으로 만들면서 유럽에 견주어 손색이 없는, 오히려 유럽의 동시대 연극보다 더 실험성이 강하고 미학적으로 새로운 수잔 글라스펠(Susan Glaspell)이나 오늘날같은 작가들의 희곡이 등장한 것이다.

1918년부터 희곡작가들에게 상을 줌으로써 현대미국희곡사에서 정전의 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는 풀리처상(The Pulitzer Prize)의 출현도 모더니티의 일면인 강력한 대중매체의 등장과 무관하지 않다. 처음에는 대중들에게

2) Peter Wagner, "The Resistance That Modernity Constantly Provokes: Europe, America and Social Theory" in *Thesis Eleven* 58 (August 1999): 35~36참조.

의미있는 보도를 했다고 판단되는 저널리스트들에게 수여하던 상이 점차 문학, 예술부문으로 확장된 풀리처상은 이전 한 해 동안 소규모 지역극장을 포함해 미국전역에서 공연된 적이 있는 희곡작품의 작가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1918년부터 1950년까지 수상자가 없었던 4년(1919, 1942, 1944, 1947)을 제외하고는 매년 수상했던 작가들의 면면을 보면 유진 오닐이 3회 수상(오닐은 1957년 『밤으로의 긴 여로』(*Long Days Journey into Night*)으로 총 4회 수상)로 최다를 기록했고 쏜튼 와일더(Thornton Wilder)가 2회, 수잔 글라스펠, 테네시 윌리엄스, 아서 밀러가 각각 1회 수상을 기록하고 있다. 플레처는 풀리처 수상자들 가운데 미국희곡을 대표하는 위의 작가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수상자들, 예컨대 오웬 데이비스(Owen Davis), 해처 휴스(Hatcher Hughes), 시드니 하워드(Sidney Howard), 조지 켈리(George Kelly), 폴 그린(Paul Green), 마크 코넬리(Marc Connelly), 시드니 킹슬리(Sidney Kingsley), 메리 코일 체이스(Mary Coyle Chase)는 시간이 흐르면서 잊혀진 작가들이 되었다고 지적하면서 풀리처가 반드시 최고의 바로미터 역할을 했던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상기시킨다(107-8). 그 일례로 1935년 릴리언 헬만(Lillian Hellman)의 『아이들의 시간』(*The Children's Hour*)와 클리포드 오데츠(Clifford Odets)의 『깨어나 노래하라』(*Awake and Sing*)를 누르고 풀리처상을 수상한 조이 애킨스(Zoe Akins)의 『늙은 처녀』(*The Old Maid*)는 공연사에서나 희곡의 내용면에서 앞의 두 작품보다 더 공연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시대를 대표하는 작품으로 거론되는 일도 드물다고 플레처는 지적하고 있다. 특히 1935년 풀리처상 심사위원단은 레즈비어니즘을 소재로 한 헬만의 『아이들의 시간』 공연 보기를 거부함으로써 풀리처보다 진보성향을 보이는 뉴욕 비평가협회상(New York Drama Critics' Circle Award)이 탄생하기도 하였다. 이렇듯 다소 장황하게 미국희곡사 정전형성과정에 기여한 상의 역사를 나열하는 이유는 제 1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사회가 급속히 팽창하면서 분야별 전문성 역시 급속히 분화하였고 전시(戰時)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신문, 라디오와 같은 대중매체가 일반인들의 문화활동인 연극공연관람행태나 취향, 인식까지도 안내하고 이끌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 강력한 매체가 등장하거나 매체의 영향력이 사회 문화적으로 팽배해지

는 것은 모더니티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이며 비교적 공정한 과정을 거쳐 분야별로 뛰어난 개인들의 업적을 수상하고 인정하는 사회적인 경향 역시 개인주의(individualism)와 사회적 권위(authority)를 동시에 인정하면서 민주적인 의견수렴에 대한 대중의 열망이 표출된 모더니티의 대표적 특징 중 하나이다.

결과적으로, 민주적인 소규모 집단운동과 강력한 대중매체의 등장과 같은 모더니티의 양상이 오닐, 밀러, 윌리엄스에 이르기까지 미국을 대표하는 극작가들의 출현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셈인데 이 모더니티의 시기를 살아내며 작품을 썼던 이 희곡작가들은 아이러니컬하게도 자신들의 작품 속에서 아메리칸 모더니티에 대단히 회의적인 눈길을 보내고 있다.

2. 미국희곡에 드러난 모더니티 인식

1) 모더니티와 전통의 이분법

피터 와그너는 모더니티에 대한 개념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모더니티 현상이전의 시기를 전통이라는 꼬리표를 붙여 일반화함으로써 모더니티와 전통의 이분법을 형성한 것은 다름 아닌 유럽의 지식인들이었다고 지적한다. 따지고 보면 그 속도와 양상에는 차이가 있을지언정 “전통”의 시기라고 불렀던 시대에도 모더니티는 진행되었던 셈인데 역사를 선형적(linear)이고 이분법적(binary)으로 바라보는 지배적인 시각 때문에 모더니티 논의의 대상이 되는 시기 이전은 “전통”으로 치부해버리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본고의 논의도 자칫 1910년대 이전의 미국사회는 전통적이며 제 1차 세계대전 직후 모더니티의 시대가 도래했다고 보는 이분법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기를 희망한다. 앞서 강조한대로 모더니티의 양상은 역사적 철학적 관점에 따라 다르듯 시대별로 각기 다르게 나타나며 다만 제 1차 세계대전 직후 미국사회에서 보다 포괄적으로 모더니티의 거의 모든 양상들이 모습을 드러냈기 때문에 이 40여 년간의 역사가 아메리칸 모더니티 고찰의 가장 흥미로운 시기라고 판단되는 것이다.

흥미로운 것은 오랜 세월동안 철학적인 전통에 입각해 사유하던 유럽문명과 달리 미국은 상대적으로 철학이 부재했고 미국사회에 대해 언급하는 철학적인 시각은 더더욱 부재했던 제 1차 세계대전 직후 철학적 사유를 대신해서 미국사회를 바라본 것이 바로 문학이었다는 사실이다. 크리스토퍼 빅스비(Christopher W. E. Bigsby)는 다른 장르보다도 희곡이 상대적으로 현실과 더 긴밀하게 소통하는 특징을 보이는데 그 이유는 다중의 관객을 상정하고 쓰는 문학인만큼 현실사회의 지배적인 이데올로기나 변화에 희곡작가들이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할 뿐만 아니라 등장인물들의 언어자체가 현재시점으로 쓰여지는 만큼 희곡은 문화적인 비평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지적한다(Drama has always the power to engage the present in a way that is less true of other genres. Unlike the novel it speaks in the present tense . . . and the sense of shared experience which derives from this makes it a sensitive instrument for plotting changes in cultural pressure 331).

전통과 새 가치가 충돌하며 빚어내는 갈등은 어느 문학에서나 지속적으로 재현되어온 주제이지만 미국희곡에서는 21세기 초반인 오늘날까지도 정전으로 인정받는 거의 모든 문학작품에 가장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주제이다. 밀리의 『모든 나의 아들들』(*All My Sons*), 『세일즈맨의 죽음』(*Death of a Salesman*), 윌리엄스의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A Streetcar Named Desire*), 『유리동물원』(*The Glass Menagerie*)를 비롯해 1950년대 이후 에드워드 올비(Edward Albee)의 『동물원이야기』(*The Zoo Story*), 로레인 한스베리(Lorain Hansberry)의 『태양 속 건포도』(*Raisin in the Sun*), 니로 크루즈(Nilo Cruz)의 『열대의 안나』(*Anna in the Tropics*)에 이르기까지 전통과 현대의 이분법적 구도는 때로는 세대 간의 갈등으로, 때로는 여성과 남성의 갈등으로, 때로는 남부와 그 이외지역의 갈등으로, 때로는 서로 다른 인종간의 갈등으로, 때로는 서로 다른 계층 간의 갈등으로 형상화되었다.

앞서 인용했던 사회학자 와그너의 지적대로 미국문명 탄생 초기부터 유럽을 끊임없이 의식했던 미국인들은 유럽 대 미국, 백인 대 흑인, 나아가서는 백인 대 유색인종, 남부와 북부, 여성과 남성, 동부와 서부 등 가능한 모든 가치체계에 의해

나와 다른 타자 집단을 구분짓는 경향이 있었고 미국 사회 전반적으로 이분법적 사고가 팽배해있었다. 1927년 미국을 방문했던 프랑스인 앙드레 지그프리트(Andre Siegfried)는 자신의 책 『미국의 시대가 도래하다』(*America Comes of Age*)에서 1차 세계대전 직후 미국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미국 내의 기득권층이 몰릴 듯 들어오는 새로운 외국인 이민자들에 대해 보이는 불편한 심기라고 지적한다. 그러면서 급속하게 다변화되는 인종적 사회적 분화 속에서 미국인들은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진단한다. 그러나 오늘을 제외하고는 1910년대부터 50년 사이의 대표적인 미국희곡작가들이 인종적인 문제를 다룬 경우는 극히 드물다. 미국 사회는 이미 급변하는 사회의 물결에 몸을 내맡긴 채 동물적인 본능으로 적응해가는 사람들과 새롭게 태동한 사회의 여러 모습에 당황하며 부적응증세를 보이는 인물들로 나뉘게 되었으며 한 나라인 미국에 마치 다른 공간이 존재하는 듯 지리적 공간에도 ‘전통’과 ‘모더니티’라는 대조적인 이미지가 부여되었다. 북부 신흥 공업 도시들이 미국의 산업화를 주도하는 모더니티의 공간이라면 남부는 전통적인 미국의 옛 가치를 상징하는 공간으로 상징되었다. 도널드 벨로미(Donald Bellomy)는 실질적으로 실체도 없고 구체적인 지리학적 공간도 아닌 옛 남부(the Old South)에 대한 문화사회학적 공간개념이 형성된 시기가 바로 아메리칸 모더니티와 관계가 있음을 지적한다. 미국의 남북전쟁이 북쪽과 남쪽의 경제적, 문화적 차이에 대한 인식을 강화한 것은 틀림없지만 20세기 초반부터 헨리 제임스(Henry James)나 헨리 애덤스(Henry Adams)같은 작가들이 소설에서 산업화된 노동윤리나 효율적인 생산방식을 강조하면서 상대적으로 전근대적인 노예제도에 기대었던 남쪽의 방식은 “달빛아래 매그놀리아를 감상하던 시절의 구닥다리 감상주의”(Bellomy 11)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었고 남쪽 출신의 인물들을 정치적, 사회적, 도덕적으로 “다른” 유형으로 취급하기 시작하였으며 1930년대 대공황을 맞으면서 경제화, 산업화에 걸림돌이 되는 모든 구시대적 가치를 청산해야한다는 이데올로기와 더불어 남쪽의 라이프스타일을 낭만적 향수로 기억하기 시작했다고 지적한다(11-12).

흥미로운 것은 거의 예외없이 전통을 대변하는 인물들이 관객으로 하여금 쉽게 감정이입을 유도하는 인간적이고 긍정적인 인물들로 재현되는 반면 현대적이

거나 새로운 가치관을 대변하는 유형들은 비인간적이고 성찰이 부족한 위협스런 인물들로 묘사된다는 점이다. 소피 트래드웰(Sophie Treadwell)의 『마키날』(*Machinal*)에 등장하는 남편이자 보스, 엘머 라이스(Elmer Rice)의 『계산기』(*The Adding Machine*)의 주인공, 『세일즈맨의 죽음』의 하워드(Howard), 『육망이라는 이름의 전차』의 스탠리(Stanley)가 대표적으로 산업화된 미국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인물들이다. 이 작가들은 급속도로 변모하는 사회를 불안하게 바라보며 멈춰 세울 수조차 없는 모더니티의 파장들에 대해 그나마 정서적으로 브레이크를 걸고 성찰해보야 할 것 같은 책임감을 갖게 되었고 특히 양차세계대전 사이의 대표적인 미국 희곡작가들은 사라져가는 전통적인 미국의 가치와 옛 모습을センチ멘탈한 향수에 젖어 바라보면서 당대 미국사회의 변화들을 우려하였다.

2) 안타고니스트로서의 사회

『세일즈맨의 죽음』에서 소시민적 가정의 무기력한 가장의 전형인 윌리 로먼(Willy Loman)이 자신의 젊은 고용주 하워드를 찾아가 내근을 요청할 때 비인간적이고 무자비한 자본주의 경영인을 대표하는 하워드는 “사업은 사업이요”(Business is a business)라며 일을 그만 둘 것을 권한다. 하워드에게 “오렌지를 까먹고 껍질을 버리듯 인간을 취급할 수는 없는 거요. 인간은 과일이 아니니까!”(You can't eat the orange and throw the peel away—a man is not a piece of fruit!)라고 항변하는 윌리의 말은 사실 하워드로 상징되는, 비인간적으로 자본주의 이데올로기가 팽배해가는 미국사회 전체에, 작가 밀러가 던지는 비판이다. 입센이 구현했던 사회주의 리얼리즘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밀러는 사회비평으로서의 연극을 꿈꿨다. 그는 『세일즈맨의 죽음』에서 산업화와 도시화를 상징하는 고층 아파트 건물이 압도하듯 윌리 로먼의 주택을 내리누르는 듯한 형상을 묘사하면서 로먼일가를 위협하는 것은 다름 아닌 거대한 미국사회 그 자체임을 표현주의적으로 암시한다. 그 고층아파트들은 미국의 재빠른 산업화와 도시화의 자랑스런 상징이 아니라 전원적인 미국의 중산층 가정을 위협하는 흉물스런 안타고니스트이고 밀러는 로먼가의 보잘 것 없는 주택 위 하늘빛이 “분노에 찬 주황빛”(an angry glow of orange)으로 물들어있다고 묘사

함으로써 보통사람들의 꿈과 아메리칸 드림을 짓밟으며 진보라는 미명하에 거침없이 자행되는 산업화와 도시화에 미국인들이 얼마나 분노하고 좌절하고 있는가를 함축적으로 지적한다. 이 작품이 공연되고 과연 현대에 있어 비극이 가능한가에 대한 논란이 일자 밀러는 뉴욕 타임스(New York Times)에 기고한 유명한 에세이 「비극과 보통사람」(“Tragedy and the Common Man”)을 통해 왕족과 귀족이 없는 현대 사회에서는 평범한 보통사람이 비극의 주인공이 될 수 있으며 단 개인의 존엄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있는 등장인물을 보았을 때 관객인 우리 마음에 비극적 감정이 일어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많은 비평가들은 윌리가 사회라는 거대한 적과 맞서 싸우기에는 지나치게 무기력하고 비참한 희생자로 그려짐으로써 그의 영웅적인 면모가 너무 축소되었음을 지적한다. M. W. 스타인버그(M. W. Steinberg)는 밀러가 가진 비극의 개념과 그것의 표현 사이에 괴리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주인공 윌리가 단지 사회의 희생자로 그려져 있을 뿐 비극적 주인공으로서 고귀함을 성취하지 못한 데에는 사회 비평에 관한 밀러의 관심이 너무 크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이형식 112에서 재인용). 연극뿐만 아니라 문화를 대표하는 지성인으로서 미국사회에 대해 예리한 비판을 서슴지 않았던 밀러는 어린 시절 경제대공황을 거치면서 마르크스 경제이론과 사회주의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1950년대 매카시선풍을 거치며 보다 더 체제저항적인 인사가 되었고 이미 1940년대부터 양적으로만 급속도로 팽창해가는 미국 자본주의의 폐단을 좌절된 주인공들을 통해 비판적으로 극화하였다.

윌리엄스 역시 무대장치를 통해 등장인물들이 산업화된 도시 속에서 경험하는 억압과 좌절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All of these huge buildings are always burning with the slow and implacable fires of human desperation," *The Glass Menagerie* scene I, 399) 윌리엄스의 희곡에서는 비록 그 특유의 시적 향취로 인해 밀러의 작품에서만큼 직설적이지는 않지만 거대한 별집처럼 밀집된 아파트 건물이나 숨 막힐 듯 답답한 좁은 공간을 통해 미국 중, 하류 사람들의 질식할 것 같은 폐소공포증적 일상이 제시된다. 그런데 그의 대부분의 희곡에서 산업화, 도시화된 공간은 부적응증세를 보이는 자들까지 관대하게 포용할만한 여유를

보여주지 않는 적대적인 시험의 공간이다. 거친 현실을 피해 각자 자기 나름대로 구축한 환상과 방어기제에 기대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윌리엄스의 인물들에게 바깥세상은 다름 아닌 생존각축의 정글(jungle)이자 즉각적인 위협이다. 세계대전, 스페인내전, 경제대공황과 같은 거대한 가부장적 질서의 재편과정에서 산업화 도시화까지 소화해 내어야만했던 과도하게 ‘남성적’인 미국사회에서 사회가 요구하는 성정체성이나 젠더의 위계질서에 효율적으로 적응하지 못하는 인물들은, 제거되어야 할 불필요한 존재들로 간주되었다.

3) 적응하지 못하는 개별적 자아

사회가 적대적일수록 새로운 시스템이나 질서에 적응하지 못하는 인물들도 많아졌다. 1910년대와 1920년대 글라스펠, 트래드웰을 비롯한 소위 진보시기(the Progressive Era)의 여성희곡작가들의 작품은 예외 없이 사회생활, 결혼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여성인물들을 보여준다. 그들을 억압하는 것은 가부장적 사회나 가정의 남성인물들인 것으로 보이지만 엄밀히 따지면 남성인물들 역시 겉으로 드러내지 않았을 뿐 불안감을 내면화하고 억압함으로써 긍정적인 관계형성에 실패하고 궁극적으로 여성들의 갑작스런 폭력이나 분노의 대상으로 전락하는 모습을 보인다. 아예 “도망자적 인간유형”(the fugitive kind)을 주로 다룬 윌리엄스의 작품에서 부적응증세를 보이는 이 개별적 자아들은 가장 매력적인 인물들로 미국희곡사에 길이 남을 아이콘들이 되고 있다.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의 블랑쉬(Blanche), 『유리동물원』의 아만다(Amanda), 로라(Laura), 탐(Tom)은 모두 상처받기 쉬운 성격의 소유자로 현실도피적인 성향을 보이며 과거의 기억에 침잠해 있거나 다른 세상으로의 탈출을 꿈꾼다. 유럽희곡이 입센, 버나드 쇼로 이어지는 사회주의 리얼리즘을 통해 개인과 사회의 각성을 통한 계몽과 집단적 사회의식과 같은 주체의식을 주로 선보였다면 비슷한 시기 바다 건너 미국의 연극무대에서는 더욱 더 반영웅적인(anti-heroic) 사회부적응자들이 산업화이전의 미국사회에 대한 향수를 자아내고 있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모더니티의 양상을 더욱 더 첨예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은

바로 사회적인 맥락에 안전하게 들어맞지 못하는 이들 도망자들이었다. 19세기 후반 유럽의 지식인들 사이에 가장 큰 화두가 되었던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이 제 1차 세계대전을 전후해 미국에 소개되면서 개별적인 자아의 심리상태와 의식을 묘사하는 미국작가들의 극작술이 더욱 더 성숙하기 시작하였다. 흥미롭게도 부적응증세를 보이는 인물들의 심리상태가 더욱 더 현실감있게 대사와 행동을 통해 재현되었고 이러한 반사회적 인물묘사를 통해 이들을 관대하고 따뜻하게 수용하지 못하는 미국사회 전반이 문제적으로 포착되었다. 그러나 문학과 예술은 사회학과는 달라서 단지 반영웅적, 반사회적인 인물들만 선보인다고 해서 사회의 문제점을 지적한 좋은 작품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20세기 전반 미국희곡이 미국희곡사를 대표하는 정전으로 자리 잡았을 뿐만 아니라 동시대 유럽의 희곡보다도 더 자주 공연되거나 거론되는 이유는 미국문명의 뿌리깊은 전통이자 모더니티의 주요한 특징 중의 하나인 개별적 자아에 대한 관심과 인식이 작품 속에 뚜렷하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즉 미국희곡은 유럽이나 다른 문화권에 비해 개별적인 캐릭터중심의 문학이라고 할 수 있다.

대공황기 1930년대를 대표하는 희곡인 클리포드 오넛츠의 『레프티를 기다리며』(*Waiting for Lefty*)는 뉴욕시내 택시운전기사들의 파업과 집단행동 결정과정을 보여줌으로써 제랄드 버코위츠(Gerald Berkowitz) 말대로 “경제공황과 전쟁이라는 국가적 상처가 가정이라는 배경에서 작은 무리의 사람들에게 끼친 영향을 통해 극화될 수 있다는 것”(이형식 51에서 재인용)을 보여주는데 등장인물들이 개별적 자아로 묘사되기 보다는 삽화적이고 정형화된 유형으로 그려지고 있다. 그 때문인지 이 작품은 1935년 초연되었을 때 집단적이고 선동적인 현실조명으로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으나 오늘날에는 오닐, 밀러, 윌리엄스의 작품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평가받고 있는 현실이다. 이 작품에는 역사나 이데올로기는 있으나 세월을 건디어 널만한 개성있는 등장인물이 없기 때문이다. 반사회적인 캐릭터들일지라도 불안정하고 모순된 각각의 내면을 (정신)분석적, 상징적, 표현적으로 조명함으로써 개별적 자아가 모더니티와 충돌하는 모습을 보여준 오닐, 윌리엄스, 밀러의 희곡들이 더 가치를 인정받은 것이다.

4) 노동이 야기하는 소외

글라스펠의 『사소한 것들』(*Trifles*)은 젠더화된 가부장적 일상 속에서 여성이 전담하는 농가의 가사노동이 얼마나 사소한 것으로 치부되는지를 남편을 살해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농부의 아내 미니 라이트(Minnie Wright)의 부엌을 통해 조명하고 있다. 미니의 정돈되지 않은 부엌을 들여다보는 헤일부인(Mrs. Hale)과 피터스부인(Mrs. Peters)의 대화를 통해 작가는 라이트부인뿐만 아니라 당시의 여성 모두가 반복적이고 지루하며 “사소하기”까지 한 일상적인 노동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흔히 글라스펠의 작품이 미국희곡사에서 거의 최초로 남들보다 앞서 여성주의적 각성을 보여주는 작품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인정받고 있지만 『사소한 것들』의 또 다른 문학사적 가치는 1차 세계대전을 전후해 문학의 집중적인 관심의 대상이었던 대도시의 삶과 정서, 미국이라는 거대담론에 가려 주목받지 못했던 농촌의 소외된 계층의 일상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데 있다. 그러한 관점에서 보면 이웃과 고립되어 기계적인 노동을 반복해야 하는 암울한 농부 라이트의 삶 역시 자신의 아내의 일상 못지않게 소외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노동이 생산적이고 의미있는 일임에는 틀림없으나 궁극적으로 노동을 통해 각자의 개인은 다른 개인과 사회로부터 소외되고 말 것이라는 경고와 우려는 아담 스미스(Adam Smith)의 『국부론』(*The Wealth of Nations*)에서부터 암시되고 있지만(3-16) 좀 더 구체적으로는 마르크스적인 사회주의적 관점이다. 밀러는 『모든 내 아들들』에서부터 산업화된 현대사회의 비극중 하나인, 집단 의식이 사라지고, 인간과 인간사이의 소통이 단절되며 분자화된 개인에게 닥치는 불행을 형상화하였다. 밀러는 「현대희곡에서의 가족」(“The Family in Modern Drama”)이라는 에세이에서 이렇게 지적한다:

우리가 위대하거나 심각하다고 보는 거의 모든 희곡을 보면 궁극적으로 한 가지 쟁점으로 귀결되는데 그것은 한 인간이 어떻게 바깥세상에 편안하게 적응해서 세상을 가정처럼 만들 것인가의 문제이다.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부단히 애쓰고 노력해서 자신의 내면과 바깥에 존재하는 문제들을 극복함으로써 인간이 가족이라는 관념을 떠올릴 때 연관지어 생각하는 가치들인,

안전하게 사랑으로 둘러싸여 영혼의 평안함과 정체감, 영예로움을 획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인 것이다.

[A]ll plays we call great, let alone those we call serious, are ultimately involved with some aspect of a single problem. It is this: How may a man make of the outside world a home? How and in what ways must he struggle, what must he strive to change and overcome within himself and outside himself if he is to find the safety, the surroundings of love, the ease of soul, the sense of identity and honor which, evidently, all men have connected in their memories with the idea of family? (36-37)

가족 이데올로기에 대한 밀러의 신념은 『모든 내 아들들』부터 『세일즈맨의 죽음』, 1950년 이후 작품인 『다리에서 본 풍경』(*A View from the Bridge*), 『희생』(*The Price*)까지 지속적으로 나타나는데 공통적으로 그의 작품 속에서 노동은 생산적이고 건강한 활동이기보다는 개인을 소외시키고 기계적으로 전락시키는 기제로 재현된다. 밀러는 「사회극에 관하여」(“On Social Plays”)라는 글에서:

『세일즈맨의 죽음』이 그토록 강렬한 인상을 준 이유는 그다지 선하지도 않은 사람의 모습을 끊임없이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가 처한 상황이, 일단 효율적으로 구조에 적응하지 못하면 결국 우리는 혼자이고 인간으로서의 존재 가치조차도 없다는 걸 보여주기 때문이다. . . . 간단히 말해, 개개인 인간으로서의 궁극적인 가치는 부수적인 것이고 효율적인 생산의 필요성이 우선이다. 결국 우리는 기계를 위해 일하게 되었고 기계는 모름지기 멈추거나 흠이 생기거나 더럽게 방치되거나 구식이 되어서는 안된다. 오로지 인간만이 흠집이 난 채로 더럽게 홀로 남겨질 수 있을 뿐이다.

The reason *Death of a Salesman*, for instance, left such a strong impression was that it set forth unremittingly the picture of a man who was not even especially "good" but whose situation made clear that at bottom we are alone, valueless, without even the elements of a human person, when once we fail to fit the patterns of efficiency. . . . In short, the absolute value of the individual human being is believed in only as a secondary value; it stands well below the needs of efficient production.

We have finally come to serve the machine. The machine must not be stopped, marred, left dirty, or outmoded. Only men can be left marred, stopped, dirty, and alone. (10)

영업사원인 윌리는 집을 떠나 여러 곳을 전전하면서 일을 할 때도 늘 외로웠으며 보스턴 호텔에서 자신의 부도덕한 행각을 합리화한다. 밀러의 작품 속에서는 다수의 등장인물들이 지속적으로 노동을 하거나 일과 관련된 활동, 앞으로 가질 직업 등에 대해 얘기하지만 노동은 그들을 보상하기보다 소외시키고 좌절시킨다.

밀러의 작품에서는 모더니티에 대응하는 서로 다른 인물유형을 볼 수 있는데 개인사업자인 윌리의 형 벤(Ben)은 여유롭고 성공적으로 보이는, 19세기적 중산층의 가치를 대표하는 인물인 반면 윌리는 고용주의 급여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미국 대도시의 새로운 경제구조를 대변하는 인물이다. 벤은 자신의 주관에 따라 독립적으로 행동하기만 했을 뿐 방향감각조차 나빠 알래스카 대신 아프리카에 당도하게 되었는데도 거기서 다이아몬드 광산을 발견하는 행운까지 얻는, 19세기 빅토리아 문학의 전형적인 인물이다. 반면 고용된 자로서 이 도시 저 도시를 다니며 물건까지 팔아야 하는 영업사원 윌리는 상대방의 호감을 얻어야만("well liked") 겨우 성공할 수 있는, 타자의 판단과 관용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 그의 노동과 일은 결국 그 자신의 존엄성으로부터 그를 분리시키고 소외시킨다. 벤이 미국이 아닌 아프리카에서 성공한 것이나 윌리의 아들 비프(Biff)가 대도시가 아니라 아직 모더니티의 세례를 상대적으로 덜 받은 서부의 목장을 전전한다는 사실은 상대적으로 그만큼 윌리가 속한 미국의 대도시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산업화, 도시화, 자본화의 길을 걸으며 거기에 사는 모든 미국인들을 일상의 노동 속에서 소외시키고 있다고 보는 작가의 시각을 반증한다. 작은 소도시를 배경으로 삼은 쏘튼 와일더, 윌리엄 잉(William Inge), 카슨 맥컬러스(Carson McCullers), 로버트 앤더슨(Robert Anderson)의 작품에서도 역시 소외의 주제를 다룸으로써 과거 속의 미국을センチ멘탈하게 추억하고 있는데 노동과 소외의 관계를 누구보다도 먼저 첨예하게 다룬 작가는 오닐이었다. 『느릅나무 밑의 욕망』(*Desire Under the Elms*)에서 돌처럼 단단한 마음과 고된 노동으로 농장을 일궈낸 이프라임 캐봇

(Ephraim Cabot)은 아내와 자식들에게까지 지나친 노동을 강요함으로써 결국 모든 것을 잃고 소외되는 존재가 된다. 『황제 존스』(*The Emperor Jones*)와 『털보 원숭이』(*The Hairy Ape*)는 극대화된 미국의 물질문명 속에서 부적응증세를 보이며 자아를 상실하고 스스로를 소외시켜 버리는 두 인물이 파멸에 이르는 여정을 표현주의적 기법으로 제시한 작품이다. 오늘의 작품에서 노동은 더 이상 생산적이거나 필수불가결한 신성한 활동이 아니라 인간을 기계나 노예, 동물과 다를 바 없는 원시적인 상태로 전락시키는, 위협스런 물질적 욕망의 구현일 뿐이다.

III. 결론

오늘이 『느릅나무 밑의 욕망』의 배경으로 삼고 있는 미국은 이미 뉴잉글랜드의 농장에까지 골드 러쉬(Gold Rush)라는 황금만능주의가 깊숙이 침투해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 작품에서 독자들은 지구상에 가장 이상적인 기독교 국가를 건설하겠다는 꿈을 안고 출발한 미국의 청교도주의조차 인간의 자본과 소유욕을 합리화하는 기제로 전락해있음을 맛 볼 수 있다. 20세기 초반 글라스펠의 희곡은 1차 세계대전이라는 거대 정치이데올로기의 출현 속에서 산업화, 기계화에 상대적으로 뒤진 농경지대의 소외계층들이 겪었을 경제적 사회적 상실감을 드러낸다. 여성인물들의 전복적인 저항의 가능성을 암시하는 결말에도 불구하고 전화공동선(partly telephone)으로 상징되는 기계문명의 혜택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미국의 전원은 더 이상 낭만적인 공간이 아니라 산업문명이 주는 편리함에서 소외된 불편하고 거친 공간일 뿐이다. 동시대, 도시로 배경을 옮기면 오늘, 트레드웰, 엘머 라이스의 희곡들에서 독자들은 본격적으로 자본의 힘이 점차 대도시에서 괴력을 발휘하며 인간성을 말살하는 모습을 엿볼 수 있다. 등장인물들은 기계나 동물적인 단계로 추락하여 자아를 상실한 채 파괴적인 폭력성으로 저항하려 하지만 찰리 채플린(Charley Chaplin)의 영화 <모던 타임스>(Modern Times)가 재현하는 시계부품의 이미지대로 사회는 꿈쩍도 하지 않은 채 오히려 기계의 톱니바퀴처럼

일상을 반복할 뿐이다. 윌리엄스, 밀러의 1930년대 배경의 희곡들에서는 자본주의가 팽배할대로 팽배한 미국의 대도시에서 도시생활과 인간관계, 가족관계가 부적응증세를 보이는 개인들을 압도하여 결국 주인공들의 자아와 가족관계까지도 파멸과 해체로 몰아가는 양상을 목도할 수 있다.

철학과 성찰이 부재하고 물질만능주의가 팽배했던 양차 세계대전사이 역사 이래 유례없는 경제적 호황과 대공황을 짧은 시간 안에 차례로 경험한 미국희곡 작가들은 산업화, 도시화, 자본주의를 향해 무섭게 질주하는 미국사회를 비판적으로 성찰해야할 책임감을 느꼈고 그들이 모더니티를 인식한 방향은 흥미롭게도 대단히 유사한 패턴을 보이면서 작품의 주제의식에도 강렬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결론적으로 1910년부터 1950년에 이르는 40년 동안 미국희곡은 그 어느 시기보다도 비판적으로 사회를 반추하는 거울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었다. 아이러니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사회는 자본주의와 산업화, 기계화의 속도를 한 번도 늦춘 적이 없으며 자본주의의 문제점에 대한 성찰의 기회도 충분히 갖지 못했다. 그러한 철학과 성찰의 부재에 대한 책임감을 떠맡은 사람들이 바로 작가들이었으며 미국의 대표적인 희곡작품들은 특히 더 미국사회의 모더니티의 제반 양상들을 희망적이고 긍정적이기보다는 걱정하고 우려하는 시선으로 바라봄으로써 그나마 미국 사회의 모더니티가 파생시키는 문제점과 부조리들을 인식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주제어 미국희곡, 모더니티, 아메리칸 모더니티, 20세기 초반 미국사회, 1910-1950년대 희곡

인용문헌

이형식, 『현대미국희곡론』. 서울: 신아사, 2003.

Bellomy, Donald C. "Southern Identity and American Modernity" *Conference Proceedings of Crossing America's Internal Borders, the 41st Annual International Conference of the American Studies Association of Korea*. (October, 2006). 1-25.

Bigsby, C. W. E., "Drama as Cultural Sign: American Dramatic Criticism, 1945-1978" *American Quarterly*, Baltimore: Johns Hopkins UP, 1978.

Bradbury, Malcolm & James McFarlane ed. *Modernism: A Guide to European Literature 1890-1930*. New York: Penguin Books, 1976.

Eysteinnsson, Astradur. *The Concept of Modernism*. Ithaca: Cornell UP, 1990.

Fletcher, Anne. "Reading Across the 1930s." *A Companion to Twentieth-Century American Drama*. Ed. David Krasner, Malden: Blackwell Publishing, 2006. 106-26.

Krutch, Joseph Wood. *Modernism in Modern Drama*. Ithaca: Cornell UP, 1953.

Miller, Arthur. "The Family in Modern Drama." *Atlantic Monthly* CXCVII (April, 1956): 36-37.

_____. "On Social Plays." *Atlantic Monthly* CXCVII (April, 1956): 10.

Moses, Montrose J. *Dramas of Modernism and Their Forerunners*. Boston: Little, Brown, 1941.

Smith, Adam. *The Wealth of Nations*. New York: Modern Library, 1937. 3-16.

Wagner, Peter. "The Resistance That Modernity Constantly Provokes: Europe, America and Social Theory." *Thesis Eleven* 58 (August 1999). 35-58.

Waters, Malcolm ed. "General Commentary: The Meaning of Modernity." *Modernity: Critical Concepts. Volume I Modernization*.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xi-xxiii.

Watt, Stephen and Gary A. Richardson. *American Drama: Colonial To Contemporary*. Orlando: Harcourt Brace, 1995.

Williams, Tennessee. "The Glass Menagerie." *Tennessee Williams: Plays 1937-1955*. New York: The Library of America, 2000. 393-466.

Modernity Represented in American Drama 1910-1950

Abstract

Woo, Miseong

Although there have been numerous ways of understanding what modernity is, during the first four decades in the twentieth-century, and in particular during the inter-war period, some of the most significant signs of modernity were visible in the American society. This essay explores some of the ways in which the twentieth-century American playwrights between 1910 to 1950 perceived and responded to the impact of modernity and the ways in which they channelled their observations into the thematic patterns in their representative drama. Modernity should be reassessed within a specific time period and a locale. In the first half of the twentieth-century, American society witnessed rise of capitalism, rapid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urbanization, industrialization, proliferation of mass media, spread of social or community movements, and strong sense of modern individuals.

All those modernization processes seemed unstoppable, constantly isolating people from their sense of dignity, freedom, work and family. Negative impacts of modernity, thus, had occupied American playwrights' consciousness. The representative American drama written during 1910-1950 demonstrates the dominant themes such as dualism between tradition and modernity, disenchantment of the society as an antagonist, decontextualized individuals, and alienation of labor. American drama in the first half of the twentieth-century, serving as cultural sign and social commentary, resisted American modernity.

Key Words American Modernity, Modern American Drama 1910-1950, Dualism
between Tradition and Modernity, Society as an Antagonist,
Decontextualized Individuals, Alienation of Labor

우미성 (단독연구)

연세대학교

논문투고일: 2007년 10월 30일

논문심사일: 2007년 11월 5일 ~ 2007년 12월 11일

게재확정일: 2007년 12월 12일